



## 미국 증시, 경제성장을 부진에도 실적 기대감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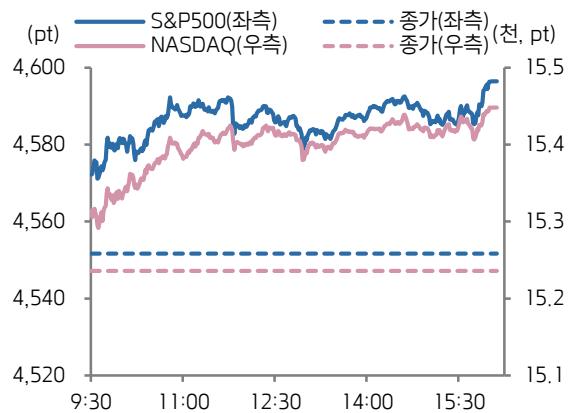
28 일 (목) 미국 증시는 3 분기 성장을 부진에도, 시장 친화적이었던 ECB 회의 결과, 포드(+8.7%), 캐터필러(+4.1%)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이 위험자산선호심리를 확대시킴에 따라 상승 마감(다우 +0.68%, S&P500 +0.98%, 나스닥 +1.39%, 러셀 2000 +2.02%).

개장전 공개된 경제지표들은 혼조된 모습을 보임. 3 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2.7%)를 크게 하회했지만, 주간 신규 실업수당은 28.1 만명으로 발표되며 4 주 연속 개선세를 보임.

ECB 통화정책회의는 기준금리 동결, PEPP 자산 매입 프로그램 속도를 2,3 분기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정책 유지. 라가르드 총재는 EU 의 생산량이 연말이며 코로나 이전을 넘어설 것이라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표명.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수개월간"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년엔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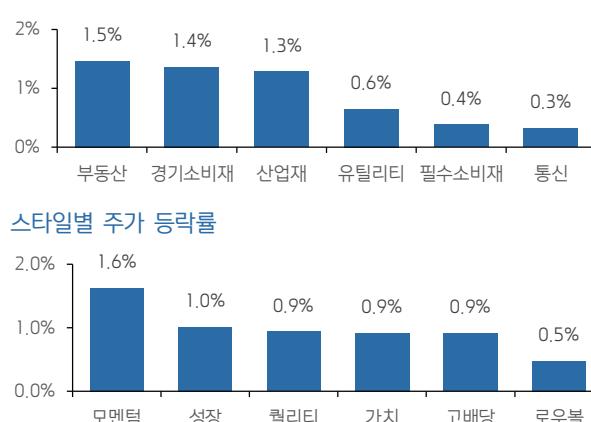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은 예상을 하회하며 모두 장외로 3% 이상 하락 중. 애플은 매출 833.6 억 달러(예상 848.5 억 달러), EPS 1.24 달러(예상 1.24 달러)로 실적 부진. 매출 부진 요인으로 예상보다 타격이 커던 반도체 공급 부족, 델타 변이 영향이라고 설명. 아마존은 매출 1108.1 억 달러(예상 1116 억 달러), EPS 6.12 달러(예상 8.9 달러)로 실적 부진. 가이던스도 1300 억~1400 억 달러(예상 1421 억 달러) 예상 하회. 가이던스 또한 부진하게 제시한 요인으로 인력 부족, 공급망 차질, 그리고 온라인 소비 둔화를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96.42	+0.98%	USD/KRW	1,169.58	-0.07%
NASDAQ	15,448.12	+1.39%	달러 지수	93.36	-0.47%
다우	35,730.48	+0.68%	EUR/USD	1.17	+0.01%
VIX	16.53	-2.65%	USD/CNH	6.39	-0.01%
러셀 2000	2,297.98	+2.02%	USD/JPY	113.57	-0.01%
필라. 반도체	3,438.83	+2.3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921.69	+1.26%	국고채 3년	2.035	-3.2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2.420	-9bp
Eurostoxx50	4,233.87	+0.31%	미국 국채 2년	0.489	-1.4bp
MSCI 전세계 지수	741.75	-0.55%	미국 국채 10년	1.580	+3.9bp
MSCI DM 지수	3,152.05	-0.4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82.89	-1.02%	WTI	82.81	+0.18%
MSCI 한국 ETF	81.09	+0.12%	금	1802.6	+0.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으로의 쓸림현상 지속 여부
2. 미국 포드 신고가 경신이 국내 자동차주들에게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
3. 만도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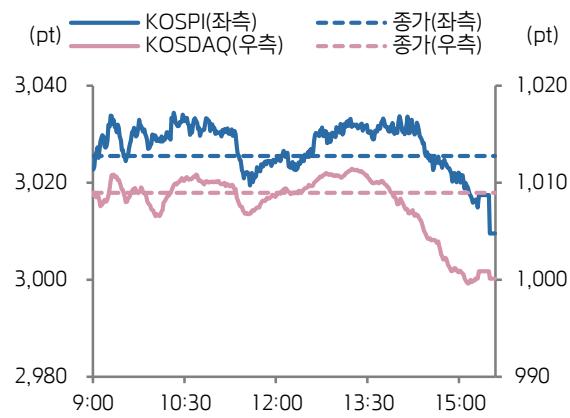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 분기 미국 경제성장률(2.0%연율, 컨센서스 2.8%)이 민간 소비부진 (2 분기 12.0%→1.6%)의 여파로 예상보다 둔화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과거의 충격을 재확인한데에 그친 수준으로 받아들인 모습. 이미 7~9 월 발표된 월간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델타 변이, 공급난의 충격을 추가에 반영해왔었기 때문. 더 나아가, 최근 발표된 10 월 소비자심리지표에서 미국인들의 소비지출의지가 호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말 소비시즌 호조 및 4 분기 성장 개선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 한편,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파월 의장과 유사한 물가 전망을 제시. 그러나 공급차질 해소는 시간 문제이라고 시사했으며, 유로존 내에서도 수요 회복세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포드, 마크 등 주요 기업들의 잇따른 호실적으로 인해 실적 시즌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장 마감 후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및 가이던스 제시로 시간외에서 5%대 동반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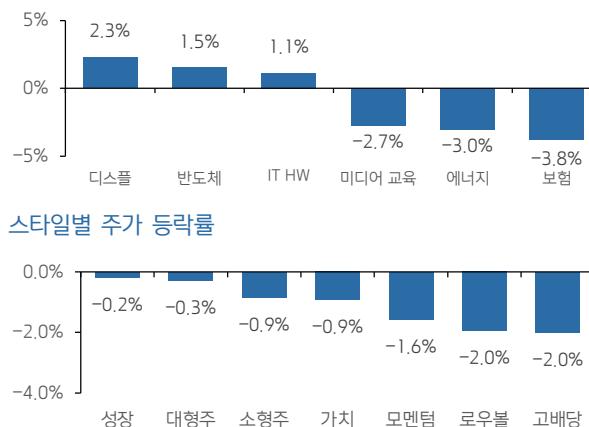
이를 감안 시 국내 증시도 지수 상단은 제한된 채 개별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를 이어갈 전망. 금일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포함 전기전자 업종의 쓸림 현상이 전거래일에 이어 지속될지 여부. 물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당 업종의 주가가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도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성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쓸림 현상이 이어질 시 그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메타버스, 친환경, NFT 등 관련 테마주들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금일 상기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습니다.